

삼성전자, LCD패널 매출 “독주”

디스플레이서치, 18억1000만달러로 26.2% 차지 ... 모니터도 1위 목전

삼성전자가 노트북용 LCD패널 출하면적에서 5개월만에 1위 자리를 탈환하는 등 대형 TV, 노트북 등 주요 부문의 LCD 매출, 출하량, 출하면적 등에서 모두 세계 1위에 오르며 독주체제를 재확인했다.

디스플레이서치가 발표한 6월 LCD패널 출하 실적에 따르면, 삼성전자는 전체 LCD 매출 뿐만 아니라 TV와 노트북 등 주요 부문을 석권했다. 삼성전자가 LCD 매출 1위를 기록한 것은 38개월째이다.

삼성전자는 6월 LCD 패널 매출에서 18억1000만달러로 시장점유율 26.2%를 차지하며 1위 자리를 굳게 지켰다.

또 노트북용 출하면적도 25만㎡를 기록해 2월 근소한 차이로 내주었던 1위 자리를 5개월만에 탈환했으며 TV패널도 75만㎡로 선두를 유지했다.

모니터 패널은 32만㎡로 1위와의 격차를 4만㎡ 이내로 줄여 1위 자리를 목전에 두고 있다.

삼성전자는 전체 매출 뿐만 아니라 대형 패널의 매출 17억달러, 출하면적 131만㎡, 출하량 831만대 등 주요 부문에서 1위에 올랐다.

6월 대형 LCD패널 시장은 3765만대, 64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13%, 12% 성장했다. 출하면적은 537만㎡로 24% 증가했다.

출하면적 기준으로 TV가 52%, 모니터가 32%, 노트북이 15%를 차지했다.

삼성전자 관계자는 “대형, 고해상도 등 고부가가치 패널에 주력하고 있다”며 “8세대 라인에서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지고 하반기 성수기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시장점유율을 더욱 확대해 대형 패널 전체 부문을 석권할 수 있을 것”이라고 밝혔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8/07/23>